

여수시, 민선8기 조직개편 확정

예산편성 권한 강화·문화유산과 신설 등 시의회 승인...내년 1월 시행 정기명 시장 “문화도시·여수형 보편복지 추진해 ‘미향여수’ 알리겠다”

여수시가 민선 8기 주요 현안 사업과 핵심공약 실현을 위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행정조직 개편으로 국 단위 기구 규모는 현 수준을 유지하되 기획예산부서를 부시장 보좌기관으로 변경해 예산편성 권한을 강화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행정지원국은 안전총괄부서를 포함하는 ‘행정안전국’으로, 기획경제국은 문화와 산업지원, 지역일자리 사업을 총괄하는 ‘문화산업국’으로 재편된다.

또 복지과 평생교육을 통합한 ‘교육복지국’, 지

속가능한 해양관광을 위한 ‘수산관광국’, 환경과 공원, 녹지관리를 통합한 ‘환경녹지국’, 주차와 차량 관리, 도로시설, 매립장 관리 등을 담당하는 ‘시설관리사업단’으로 개편된다.

부서 단위 개편으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섬박람회지원과’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정책과’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문화유산과’ ▲기존 허가민원과에서 분리되는 ‘건축과’ 등 4개 부서가 신설된다.

기존 투자박람회과는 업무 분야별로 나뉘어 산업지원과와 관광과, 해양정책과로 통합된다.

조직개편안에는 ‘여수만 르네상스 실현’, ‘미래전략사업을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빅데이터 통계 지원’, ‘여수형 통합돌봄 사업 추

진’, ‘청년지원 정책’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 등이 반영됐다.

시는 앞서 지난달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시의회 시정연설에서 “2023년은 ‘남해안 거점도시 미향여수’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직개편을 통해 여수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 시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도시, 여수형 보편복지를 추진하고, 만(灣)의 특색을 활용한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시민 맞춤형 정주여건 조성,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과 2050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수시의 조직개편안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과 ‘정원 조례’ 및 ‘정원 규칙’ 등의 추가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여수시,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사)탄소중립실천연대가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제33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2050 탄소중립·COP33 여수 유치 힘쓰다” 시·전남도·전남교육청·탄소중립실천연대 협약

여수시와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사)탄소중립실천연대가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제33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위해 힘쓰기로 합의했다.

17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이날 시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은 정기명 여수시장과 전라남도 이범우 기후생태과장, 서금열 전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사)탄소중립실천연대 김영주 공동대표와 기관별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식에서 각 기관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상

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 ▲기후환경 인재 양성 ▲기관-단체 건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정보 교류와 홍보 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인 동참 노력이 필요하다”며 “협약으로 민·관·학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성해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뉴노멀 시대, 머물고 다시 찾는 관광도시 광양으로”

시 관광진흥위원회 개최, 도선 국사 문화벨트 등 활성화 논의

광양시 관광진흥위원회가 도선 국사 문화관광벨트 조성 등 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펼쳤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2년 광양시관광진흥위원회(위원장 주순선 부시장)를 열어 위원회 재구성에 따른 위원 위촉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광양시관광진흥위원회는 관광사업자, 교수, 관광협회 임원 등 관광 분야 전문가 15인으로 지난 10월 새롭게 구성됐다. 2년간 광양시 관광시책과 관광 발전방안을 심의·자문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어 관광 활성화를 위한 2023년도 관광 분야 주요 추진시책을 살피고, 현재 추진 중인 도선국사 문화관광벨트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 논의했다.

광양시의 2023년 관광 분야 주요 사업은 ‘뉴노멀 시대, 머물고 누리며 다시 찾는 감동 관광도시’ 실현을 목표로 미래 관광전략 발굴을 위한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에 초점을 맞췄다.

관광 축제 육성 및 활성화, 스마트한 관광마케팅 추진, 구룡산 종합 관광단지 및 섬진강 디지털 관광 거점 조성, 백운산과 섬진강, 구룡산 등 권역별 관광자원 활성화 등도 중요 사업에 포함됐다.

또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매화 축제 업그레이드, 운동주 테마상품 운영, 배알도 망덕포구 연계 관광단지 조성 등 3회(최고, 최대, 최다) 기반 관광산업 육성과 품격 있는 관광 인프라 기반 구축 등도 계획됐다.

8월부터 추진 중인 도선국사 문화관광벨트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권역 내 육룡사지, 백운산 자연휴양림 등 주요 생태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 벨트화 방안, 분야별 자원 확보 등 구체적인 중장기 실행 전략을 마련하게 된다. 오감 만족 콘텐츠 발굴과 광양 관광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위원들은 용역의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함께 거시적 관점에서 2023년도 관광콘텐츠 개발, 체류형 관광 자원화 방안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의 다각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주순선 광양시 부시장은 “민선 8기 광양 관광 구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광양의 미래 먹거리인 관광산업이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 K-뷰티 선도한다... 19일 뷰티페스타 메이크업 런웨이 쇼·일자리 박람회·체험부스 등 운영

순천시가 순천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2022년 순천 뷰티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19일 오전 9시 뷰티 판타지 메이크업 런웨이 쇼와 함께하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뷰티 경연대회, 산업별 및 일자리 박람회, 위생교육, 시민체험부스가 운영된다.

행사의 핵심인 뷰티 경연대회는 지역 미용 관련 종사자와 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되며 피부, 헤어, 네일, 속눈썹, 메이크업 등 6개 분야 25개 종목에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눠 경연을 펼친다.

경연대회에서 창조적 미용기술 개발 등 우수한 기량을 펼친 참가자를 선정해 전라남도지사상, 순천시장상 등을 시상할 계획이다.

또 25개 업체가 참여하는 뷰티 산업전의 시연과 제품홍보를 비롯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보제공과 구인·구직상담, 위생업소 운영자 대상 위생 및 최신 트렌드 기술교육, 관람객들을 위한 네일, 페이스페인팅 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시는 그동안 잠재된 미용업종의 활성화와 K-뷰티를 선도할 최신 미용 트렌드 교류와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뷰티 페스타를 통해 유능한 미용인 발굴과 지역 미용산업 발전으로, 순천시 미용 트렌드와 뷰티산업이 K-뷰티를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 상진항 ‘미래형 플랫폼 항구’ 탈바꿈

어촌뉴딜 300사업 준공식 열려

보성 상진항이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미래형 플랫폼 항구로 탈바꿈했다.

보성군은 지난 15일 벌교읍 상진항에서 상진항 어촌뉴딜 300사업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지난 2018년에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을 신청해 총사업비 100억 원(국비 70억, 지방비 30억) 규모의 사업에 선정됐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노후화되고 개발이 미진한 어항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정비하여 찾고 싶고, 활력 넘치는 가치 있는 곳으로 재생하는 어항재생사업이다.

지난 2019년 기본계획을 수립, 2020년 기본계획 고시, 역량강화 사업 등의 과정을 거쳐 착공한 뒤

이달 15일 사업을 마무리했다.

상진항 어촌뉴딜 300사업의 세부사업은 공통사업으로 방파제 외곽시설 현대화, 파제제 조성 등 접안시설 보강과 공동 어구창고 및 작업장 신축, 승선대기소, 공용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특화 갯벌관찰소, 마을쉼터, 승선대기 쉼터, 마을안길조성, 마을경관정비 사업을 추진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상진항은 여자인 갯벌을 품은 청정어항이었으나 노후된 시설로 인해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어촌뉴딜사업을 통해 상진항이 가고 싶고 살고 싶은 항구가 되었다”면서 “상진항 어촌뉴딜 사업은 끝이 아니라 벌교권역 통합 관광로드의 완성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김철우 보성군수가 지난 15일 벌교읍 상진항에서 열린 상진항 어촌뉴딜 300사업 준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곡성 죽곡 토란마을서 도란도란 어때요

19일, 토란도란 마을축제

곡성군 죽곡면 주민자치회(회장 손경수)가 19일 ‘제3회 토란도란 마을축제’를 개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열리는 이 축제는 다양한 토란 먹거리를 즐기고, 일 년 농사의 노고를 서로 위로하며 토란 홍보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마련한 행사다.

곡성군 죽곡면은 전국 면 소재지 중에서 토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축제에서는 토란을 활용한 불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다.

축제장에서는 토란 껍질 벗기기 대회를 비롯해 토란 허덕, 토란 인절미 치기, 새끼꼬기 등 체험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전통적인 토란탕에서부터 MZ세대마저 반하게 만든 토란 막걸리도 맛볼 수 있다. 간토란을 비롯해 건강한 지역 농산물 등을 판매하는 농산물 장터도 운영된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DK.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